

## 『법화경』의 불타관

성우(서인렬)

### [국문 초록]

먼저 초기 경전과 『법화경』에 나타난 불타관의 원초적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자료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 『법화경』은 초기 경전에 나타난 법불일치관의 논지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었다. 다만, 초기 경전에 기술된 연기의 이법이 『법화경』 『방편품』 제2에서 제법실상과 묘법으로 전환되고, 일승으로 통일되고 있었다. 둘째, 과거불의 용례에 있어서도 두 경전은 현재불과 미래불을 함께 기술한 부분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이것은 불타의 수명이 시간적 영원성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한 흔적으로 보여진다. 셋째,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두 경전은 여래십호나 32상 80종호를 설하면서 여래의 초월성을 점차 부각시켜가고 있었다. 다만, 『법화경』에는 역사상 실재한 석가불의 시간적·공간적 초월성이 돋보인다는 점만 다를 뿐이었다. 따라서 법불일치관, 과거불사상, 여래의 초월성 등은 『법화경』의 통일적 불타관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법화경』에 나타난 불타관의 특징은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첫째, 『법화경』은 제법의 통일을 통한 일체 중생의 구제자로서 불타관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었다. 『법화경』 이전의 대·소승불교는 일체 중생의 성불까지는 폭넓게 설하지 않았다. 반면에 『법화경』에는 성문승, 일천제, 여인, 비구니 등, 일체 중생의 성불수기가 무차별적으로 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법화경』은 다보탑 내 이불병좌의 모습을 통하여 법과 불의 일치자로서 불타관을 입체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었다. 이것은

바로 원시불교, 아비달마불교, 대승불교로 이어지는 법과 부처가 『법화경』에서 질서정연하게 하나로 통일되는 통일불교(일승불교), 즉 일승 정도의 참 모습을 형상화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법화경』에서 구원본불의 개현은 제불의 통일뿐만 아니라, 대·소승불교의 불타관까지도 통일하려는 큰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평가된다. 모든 불타관이 역사적 실재의 석가불로 통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필자는 일체 중생의 구제를 역동적으로 지향하는 법화불교의 부활만이 현대불교의 희망이자, 미래불교를 담보하는 유일한 지남이 아닐는지 나름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주제어: 법불일치, 제법실상, 일승묘법, 구원본불, 이불병좌

## 1. 들어가는 말

대승불교가 출현하면서 석가불 이외 다수의 불·보살이 출현한다. 동시에 초기경전에서 연기의 이법은 대승불교에서 공, 제법실상 등으로 이행된다. 그리고 이를 구극하려는 각자의 수행법이 다르게 확립되고, 그 증과상도 달리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법화경』에서 말한 삼승방편 교설이다. 성문승은 4성제를 수행하여 아라한과, 연각승은 12연기법을 수행하여 벽지불과, 보살은 6바라밀을 수행하여 불과를 증득한다고 한다. 이러한 독자적 교리체계를 바탕으로 대·소승의 정법 논쟁이 발생한다. 무엇이 정법인가 하는 문제는 대·소승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구한 인도불교의 역사도 한 마디로 말하면 법의 발전사에 불과하다. 동시에 정법에 대한 문제는 직접적으로 불타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불타가 증득하고 설한 교설이 정법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정법 논쟁이 심화되면 필수록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일체 중생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불타의 본의가 크게 왜곡된다. 대승불교는 소승을 대승에 있어서 패종으로 보고, 소승의 불성불을 주장한다. 소승불교 역

시 성불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성문4과 중 아라한과만을 증득할 수 있으며, 일천제나 여인 등의 불성불(不成佛)을 주장하게 된다. 결국, 『법화경』 이전의 인도불교는 일대 혼란을 가져온다. 그 출구는 무엇일까? 그 해답을 제시한 것이 다름 아닌 『법화경』이다. 제법뿐만 아니라, 제불은 물론, 대·소승의 불타관을 통일할 수 있는 원리를 명백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 『법화경』에서 역설했던 일승묘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런 통일불교의 원대한 서원이 담긴 『법화경』의 불타관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II. 초기경전과 『법화경』에 나타난 불타관의 원초적 형태

일반적으로 理身卽法身 智身卽報身說이 대승불교의 법신과 보신설로 정착되었다고 한다. 물론,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지만, 그 이전의 과정만큼은 충분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대승불교의 불신관은 초기불교에서 표방하는 법불일치관과 과거불사상, 그리고 불타의 초월성, 이 세 가지 교설이 발전을 거듭하여 정립된 게 아닐까 생각된다. 본장에서는 그러한 최소한의 흔적들을 초기경전과 『법화경』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 1. 법불일치관

#### 1) 초기경전의 자료 검토

법불일치관을 형성하는 초기경전의 자료는 먼저 『중아함경』 권7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이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sup>1)</sup>

연기를 체득한 자, 즉 깨달은 자, 부처는 법을 본다는 의미이다. 물론 여기에는 부처와 법을 동일하게 보는 단계까지 진전되고 있지 않지만, 부처와 법을 일정 부분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남전』 권14 (상응부 권3)에는 법과 석존이 완전히 하나로 일치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병문안을 온 바카리가 석존의 육신을 보고 예배를 하자 다음과 같이 질책하였던 것이다.

“그만두어라. 바카리야, 이 찌어문드러질 몸을 보면 뭘 하겠는가. 바카리야,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바카리야, 법을 보고 나를 보라. 나를 보고 법을 보라.”<sup>2)</sup>

즉, 법을 보는 자는 부처를 보고 부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는 부분에서 법과 부처가 하나로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석존은 제자들에게 항상 법을 보라고 역설했던 것이다.

더욱이 『남전』 권7에서 불멸후 무불시대에는 법이 불타를 대신한다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그대들은 스승의 말씀은 끝났다. 우리의 스승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나에 의하여 설해지고 가르쳐진 법과 율이 나의 사후에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sup>3)</sup>

1) 『大正藏』T, p.467a; MN 1, p.190 (『南傳藏』T, 중부 1, p.339)

2) SN 2, p.120 (『南傳藏』T4, 상응부 3, p.190)

3) 『南傳藏』7, p.142

따라서 불멸후에 법이 불타를 대신하게 되었으며, 아비달마시대에는 법을 불타로 간주하였고, 법에 대한 연구가 각 부파별로 활발히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부에서 무수제불을 용인하면서 불타관은 한층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 2) 『법화경』의 자료 검토

『법화경』은 대승경전에 속하지만, 그 특성상 석존의 제2설법으로 불리워질 정도로 초기경전의 골격과 유사한 부분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반면에 『법화경』은 경전의 성립사상 삼승의 독자적 수행체계가 확립된 이후에 출현한 경전이기 때문에 초기경전의 골격과 핵심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당시의 시대 상황과 걸맞는 통일불교의 사명의식을 띄고 한층 세련되게 발전시킨 점이 괄목된다.

『법화경』『방편품』 제2에서 석존의 성도 내용이 “제법실상”에 이어 “일승묘법”으로 전환되고 있다. 물론 제법실상, 일승묘법은 초기불교에서 설하는 성도의 내용인 연기의 이법과 다르지 않다. 다만, 『법화경』이 출현한 그 시대에 있어서 진리에 대한 가장 적절한 명칭인 것이다. 그런 일례가 『방편품』 제2에 잘 나타나 있다.

“부처님이 성취하신 바는 가장 희유하여 알기 어려운 법이니라.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제법의 실상(諸法實相)을 능히 다 아느니라.”<sup>4)</sup>

이 제법실상을 체득한 경지가 불지혜이며, 이것에 의지하여 중생을 교화하였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일불승으로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다.

---

4) 『大正藏』9, p.5c

“사리불아, 여래는 다만 일불승으로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시고 다른 법이 없거늘 어찌하여 이승이 있고 삼승이 있겠느냐.”<sup>5)</sup>

따라서 연기의 이법은 『법화경』에서 “제법실상,” “불지혜,” “일승묘법”으로 달리 표현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진일보하여 범본의 『안락행품』 제4단 67계에는 “또 그는 산의 동굴에서 법을 명상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것이다. 법을 명상하고, 법의 자성(dharmatā: 실상)에 도달하여,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는 무수한 부처를 본다.”<sup>6)</sup>고 나타나 있으며, 이에 상당하는 『묘법화』 『안락행품』 제14 제4단 계송에도 “또 자신은 산림 중에서 선법을 수습하여 모든 실상을 증득하고, 깊은 선정에 들어가 시방의 부처를 본다.”<sup>7)</sup>고 기술되어 있다.

이 내용은 초기경전의 “부처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부처를 본다”는 표현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연기법이 실상으로 대치되어 있는 것만 다를 뿐이다.

게다가 『묘법화』 『비유품』 제3과 이에 상당하는 범본을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더 뚜렷이 드러나게 된다.

“오늘에야 진실로 불자이며, 불구로부터 태어나고, 법으로부터 화생하고, 불법을 나누어 가졌음을 알았습니다.”<sup>8)</sup>

“오늘에야 나는 진실로 세존의 정자로써 세존의 입으로부터 태어난 자이며, 법으로부터 태어난 자이며, 법으로부터 화작된 자이며, 법의 후계

---

5) 『大正藏』 9, p.7b

6) H. Kern and B. Nanjio (1977), 『Saddharmapundarika』, *Bibliotheca Buddhica X*, Printed in Japan, p.294 14-15행; Wogihara and Tsuchida (1934), 『改正 梵文法華經』, 大正大學校, p.251 23-26행.

7) 성우(1997), 『법화경 연구』, 운주사, pp.179-180.

8) 『大正藏』 9, p.10c

자입니다”<sup>9)</sup>

이상과 같은 『법화경』의 표현은 초기경전에 나타난 범불일치관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 2. 과거불사상

### 1) 초기경전의 자료 검토

불타관을 형성하는 초기경전의 자료가운데 다른 하나는 과거불사상이다. 초기경전에 언급된 과거불은 석존을 포함하면 7불이 된다.<sup>10)</sup> 먼저 그 명호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비바시(毘婆尸, Vipasīyin), ② 시기(尸棄, Śikhin), ③ 비사부(毘舍浮, Viśvabhū), ④ 구류손(俱留孫, Krakucchanda), ⑤ 구나함모니(拘那含牟尼, Kanakamuni), ⑥ 가섭(迦葉, Kāśyapa), ⑦ 석가모니(釋迦牟尼, Śākyamuni)이다.

이 7불 가운데 앞의 3불은 과거의 장엄겁, 후의 4불은 현겁(賢劫, 현제의 住劫)에 출현한 부처님이다. 특히 소부경전 중 『불중성경』에는 제1 연등불부터 제25 석가모니까지 모두 25불의 계보를 자세히 밝히고 있다.<sup>11)</sup> 그렇다면 과거불사상은 석존 이전보다 더 오래전부터 존재했다고 추정되는데, 초기경전에 언급된 과거불의 용례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9) Wogihara and Tsuchida본, p.60 2-4행.

10) 『大正藏』2, p.101b-c; 『南傳藏』6, p.362.

11) 『南傳藏』41, pp.219-357.

『長阿含經』第12, 自歎喜經	『大正藏』1, p.77a	과거여래
『長阿含經』第12, 大會經	『大正藏』1, p.79a	과거삼야삼불
『毘婆尸佛經』卷下	『大正藏』1, p.157a	과거제불
『大集法門經』卷上	『大正藏』1, p.228a	
『雜阿含經』卷29	『大正藏』2, p.209c	
『別譯雜阿含經』卷5	『大正藏』2, p.410a	
『增壹阿含經』卷40	『大正藏』2, p.767b	
『增壹阿含經』卷45	『大正藏』2, p.790a	
『增壹阿含經』卷49	『大正藏』2, p.820b	과거시제불
『增壹阿含經』卷35	『大正藏』2, p.746c	
『佛般泥洹經』卷下	『大正藏』1, p.169b	과거불
『佛說受新歲經』	『大正藏』1, p.858a	과거항사불
『雜阿含經』卷15	『大正藏』2, p.101b, p.101c	비바시불, 시기불, 비습과부불, 가라가손제불, 가나가모니불, 가섭불
『別譯雜阿含經』卷5	『大正藏』2, p.410c	과거일제불
『增壹阿含經』卷23	『大正藏』2, p.667a	과거4불
『增壹阿含經』卷23	『大正藏』2, p.671c	과거(구원)항사제불

표1.

여기에 나타난 과거불의 용례 가운데는 석가불이 제외되었지만, 설법하고 있는 석가불을 포함하면 과거7불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거불 사상은 점차 현재, 또는 미래불사상의 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초기경전에 나타난 현재와 미래 불의 용례를 살펴보면, <표2>와 같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長阿含經』 卷12, 大會經	『大正藏』1, p.79a	과거삼야삼불, 현재삼야삼불, 미래삼야삼불
『大集法門經』卷上	『大正藏』1, p.228a	과거제불, 미래제불, 현재제불
『雜阿含經』卷29	『大正藏』2, p.209c	미래제불
『別譯雜阿含經』卷5	『大正藏』2, p.410a	과거미래현재제불
『別譯雜阿含經』卷16	『大正藏』2, p.487b	과거미래제불

표2.



이상의 용례를 검토해보면, 현재불이나 미래불을 기술할 때마다 대부분 과거불이 언급되고 있다. 그것은 과거불사상이 석존 이전부터 이미 인도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 가늠하는 좋은 단서를 제공한다. 아지타 선인이 싯다르타가 미래에 불타가 되리라고 예언했던 것도 과거불사상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석존이 과거의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았다는 내용도 항상 시간을 영속성과 영원성으로 상정하는 인도인의 유연한 사고와도 합치되기 때문이다.

## 2) 『법화경』의 자료 검토

『법화경』은 「서품」 제1<sup>12)</sup>부터 과거불인 일월등명불이 등장한다. 과거무량불가사의 아승지겁에 출현하여 60소겁 동안 『법화경』을 설하고 입멸하였다. 그 후, 다시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일월등명불이 이만불이나 출현하였고, 그 중에 마지막 부처님에게 8왕자가 있었고, 모두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부처님을 공양하고 성불하였는데, 그 마지막 왕자가 바로 연등불(然燈)이라고 한다.<sup>13)</sup> 특이한 점은 일월등명불의 수명이 초기불교에서 최고의 수명을 자랑하는 연등불보다도 시간적 한계를 훨씬 능가한 과거불로써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때, 80소겁 동안 『법화경』을 설했던 묘광법사가 있었고, 그 제자 가운데 구명(求名)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제불을 공양하고 순차적으로 대도를 닦아 육바라밀을 구축하고, 석가모니불을 친견한 이후, 차후에 성불할 미륵으로 기술되고 있다. 여기에서 바로 과거불과 석가불, 그리고 미래불인

12) 「서품」 제1은 성립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방편품」 제2를 중심으로 하는 제1류의 『법화경』(원시 8품)과 「법사품」 제10을 중심으로 제2류의 『법화경』이 결집된 후, 이를 연결하기 위하여 저작되었던 것인데, 필자는 임의로 제1류의 『법화경』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제3류의 『법화경』인 후6품이 결집되었다.

13) 『大正藏』9, p.3c

미륵이 함께 등장하게 된다. 이것은 인도불교역사상 가장 먼저 과거불, 차제로 현재불, 그리고 미래불사상이 출현했다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아무튼 일월등명불은 60소집 동안 『법화경』을 설하고 입멸했다고 하는데, 상세한 부언은 다음으로 미루고 『묘법화』의 각 품에 나타난 과거불의 용례만을 살펴보면 <표3>과 같다.

『서품』 제1	『大正藏』9, p.3c	過去無量無邊不可思議阿僧祇劫爾時有佛
『방편품』 제2	『大正藏』9, p.9c	過去佛
『비유품』 제3	『大正藏』9, p.15b	
『상불경보살품』 제20	『大正藏』9, p.51b	過去有佛
『묘음보살품』 제24	『大正藏』9, p.56a	
『서품』 제1	『大正藏』9, p.3c	過去諸佛
『방편품』 제2	『大正藏』9, p.7b	
『종지용출품』 제15	『大正藏』9, p.40b	
『방편품』 제2	『大正藏』9, p.8c, 9a	諸過去佛
『서품』 제1	『大正藏』9, p.2b	過去無量諸佛
『수학무학인기품』 제9	『大正藏』9, p.30a	過去無量千萬億諸佛
『견보답품』 제11	『大正藏』9, p.33c	過去無量千萬億劫滅度佛
『안락행품』 제14	『大正藏』9, p.38c	一切過去未來現在諸佛

표3.

이상과 같이 『법화경』도 과거불을 기술하면서 현재와 미래불까지 열거하고 있는데, 이 역시 초기경전에 나타난 불타관의 골격을 답습하고 있는 흔적이 역력하다. 다만, 『법화경』에는 초기경전과는 차원이 다른 무량한 수명을 지닌 과거불이 등장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 3. 불타의 초월성

#### 1) 초기경전의 자료 검토

##### (1) 여래십호

초기경전에 그려진 석존은 설법을 통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구제자로 등장한다. 다만, 시간이 차츰 경과될수록 석존에 대한 초인화 작업은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그 과정 가운데 『남전』 권6에 나타난 여래십호는 비교적 우선순위에 속한다.

“이처럼 세존은 응공, 등정각,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신사, 불, 세존이다. 그는 천계, 마계, 범천계를 포함한 이 세계, 사문, 바라문, 천인중의 일을 홀로 證悟하고 설시한다.”<sup>14)</sup>

이상과 같은 초월성이 내재된 여래십호를 바탕으로 석존에 대한 초인화 작업은 한층 가속화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 (2) 상호와 수명

초월성이 내재된 여래십호와 함께 석존의 상호와 수명은 한층 정점을 향해 진전되는 과정이 보이기 시작한다. 『장아함경』 권2와 『증일아함경』 권22 등에는 석존의 모습을 32상 80종호로 기술하고 있다.<sup>15)</sup> 특히 『남전』 권6에는 과거7불이 탄생할 때부터 모두 32상을 구축하였

14) 『南傳藏』 6, pp.131-132.

15) 『大正藏』 1, p.12b; 『大正藏』 2, p.664a-b, p.841c, p.842a, p.844b, p.851c, p.855a.

고,<sup>16)</sup> 그 수명도 비바시불 8만세, 시기불 7만세, 비사부불 6만세, 구류손불 4만세, 구나함모니불 3만세, 가섭불 2만세로 나타나 있으나, 석존의 수명만큼은 100세 전후로 명기되고 있다.<sup>17)</sup>

더욱이 『남전』 권41에는 과거 4아승지 10만겁 전의 연등불과 석존의 전생인 선혜 바라문예 대한 수기와 함께 연등불의 수명이 10만세로 기술되어 있다.<sup>18)</sup> 이상과 같이 점차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과거불의 상호와 수명은 석존을 점점 초인화시켜갔던 것이다.

### (3) 색신의 영원성

한편, 석존을 법으로 인식하는 법불일치관은 마침내 석존의 색신을 영원불멸의 절대자인 범신과 동등하게 간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대표적 일례가 『남전』 권8에 잘 나타나 있다.

“나는 여래의 正子이다. 그의 입으로부터 태어난 자, 법으로부터 태어난 자, 법으로부터 화작된 자, 법의 상속자이다. 왜냐하면 비실타여, 여래의 칭호는 法身(Dhammakāya)이라고도, 梵身(Brahmakāya)이라고도, 法体(Dhammabhūta)라고도, 梵体(Brahmabhūta)라고도 불리워지기 때문이다.”<sup>19)</sup>

비로소 여기에 범신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범신 = 범신, 법체 = 법체의 등식이 성립된다. 당시의 바라문교에서 절대 유일신으로써 범천을 상징하였던 것인데, 이를 불제자들이 수용하여 석존을 범천과

16) 『南傳藏』 6, pp.379-383.

17) 『南傳藏』 6, pp.363-364; 勝呂信靜(1996), 『法華經の成立と思想』, 大東出版社, p.236  
에서도 과거7불이 상당히 초인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8) 『南傳藏』 41, pp.219-249.

19) DN. 3, p.84 (『南傳藏』 8, p.103); 『장아함경』 6 (『大正藏』 1, p.37b).

동일한 절대자로서 공인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남전』 권13에는 “여래가 세상에 출세하거나 불출세하거나 관계없이, 이 계는 常住한다. 確法이다. 定法이다. 연기성이다. 그것을 여래는 깨달았다”<sup>20)</sup>고 기술되어 있다.

여래의 출세나 불출세에 관계없이 연기법이 상주한다는 표현은 시간적 영원성을 뜻한다. 그렇다면 상주불멸의 연기법을 체득한 사람의 수명은 바로 연기법과 동일한 시간적 상징성을 갖게 된다. 이를 수학적으로 환산하면 석존의 수명은 가늠이 어려운 무시무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 2) 『법화경』의 자료 검토

### (1) 여래십호

『법화경』의 『서품』 제1에도 여래십호가 소개되고 있다.

“과거무량무변불가사의 이승지겁과 같은 때 부처님이 있었으니, 일월등 명여래인데,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라고 한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그 뜻은 심원하고, 그 말은 교묘하며, 순일 무잡하고, 청백한 범행의 모습을 구축하였다.”<sup>21)</sup>

여기에서 여래십호는 과거불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미래불의 호칭에도 덧붙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비유품』 제3에서

20) SN. 2, p.25 (『南傳藏』 T3, 상응부 2, p.36); 『잡아함경』 T2 (『大正藏』 2, p.84b)  
이 계는 바로 연기의 이법을 지칭한다.

21) 『大正藏』 9, p.3c

석존이 사리불에게 화광여래의 성불수기를 부여하는데, 여래십호가 등장하기 때문이다.<sup>22)</sup> 『법화경』은 제불동도를 견지하기 때문에 삼세는 물론, 시방제불의 호칭에 여래십호를 대부분 덧붙이고 있는데, 그 횟수가 무려 총 20회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다.

## (2) 32상 80종호

『비유품』 제3에는 여래십호 이외에도 32상 80종호, 그리고 18불공법까지 나타나 있다. 그런데 32상을 구축할 때, 천상계와 인간과 야차와 용신 등의 공경을 받게 된다고 한다.<sup>23)</sup> 또한 『제바달다품』 제12에는 32상 80종호에 이어 법신이란 말까지 등장한다.

“미묘하고 깨끗한 법신이 32상을 다 갖추고, 80종호로 법신을 장엄하니, 하늘과 사람들이 우러러 받들고, 용신이 다 공경하며 일체 중생들이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sup>24)</sup>

마침내 여기에서 석존을 찬탄하는 법신이란 말이 등장한다. 이 때의 법신은 32상 80종호를 구축한 시간과 공간적 한계를 초월한 불신을 암시한다. 그 구체적 사례를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 (3) 시간적 영원성

『서품』 제1에는 과거무량불가사의 아승지겁에 출현한 일월등명불이 소개된다.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초기불교에서 최고의 수명을 자랑

22) 『大正藏』9, p.11b.

23) 『大正藏』9, pp.10c-11a.

24) 『大正藏』9, p.35b-c.

하는 연등불보다도 비교할 수도 없는 수명무량의 과거불이다.

또한 『방편품』 제2에는 5불장이 설해지고 있다. 제불장, 과거불장, 미래불장, 현재불장, 석가불장이 그것이다.<sup>25)</sup> 이는 일체 제불이 일승묘법을 과거에 설해왔고, 현재에도 설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설한다는 제불동도를 말한다. 이러한 시간적 영속성은 곧 시간적 영원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화성유품』 제7에는 과거무량무변불가사의 아승지겁(三千塵劫) 전에 대통지승불이 출현하였는데, 그 수명이 무려 오백사십만 나유타겁이라고 한다.<sup>26)</sup> 그 대통지승불에게 16왕자가 있었고,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 『법화경』을 설해왔는데 맨 마지막 왕자가 사바세계에서 성불한 석가불이다.<sup>27)</sup> 이 석가불 역시 『법화경』을 설하여 일체 중생을 구제하였던 것인데, 『여래수량품』 제16에는 최고의 수명을 자랑하는 과거의 연등불보다도 시간적으로 완전히 초월해버린 구원본불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법화경』은 석존의 수명에 대한 시간적 영속성과 영원성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

#### (4) 공간적 초월성

시방제불의 용례는 공간적 초월성을 구비한 불신을 의미한다. 이것은 초기불교의 일관된 법의 영원성에 대한 기조가 그대로 불타관에 적용된 것이다. 왜냐하면 연기의 이법은 시간의 영원성은 물론, 공간적 초월성이 내재된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 연기의 이법이 『방편품』 제2에서는 제법실상으로 전환되고, 다시 일승묘법으로 대치된다.

---

25) 『大正藏』 9, p.7a-b.

26) 『大正藏』 9, p.22a-b.

27) 『大正藏』 9, p.22c.

그런 일승묘법의 논지를 역사적 사명의식 하에서 시종일관 전개시켜 완성된 것이 바로 『법화경』이다. 제1류의 『법화경』에서 제법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제2류의 『법화경』에서 제불의 통일을 설했던 것도 그런 연유로 판단된다. 여타의 경전보다도 각별히 『법화경』에 석가의 무수한 분신제불이 등장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그러면 각 품에 나타난 분신불의 용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표4>와 같다.

『견보답품』 제11	『大正藏』9, p.32c	彼佛分身諸佛在於十方世界說法
	『大正藏』9, p.32c	我分身諸佛在於十方世界說法者
	『大正藏』9, p.32c	我等亦願欲見世尊分身諸佛禮拜供養
	『大正藏』9, p.33a	(時釋迦牟尼佛)欲容受所分身諸佛故
	『大正藏』9, p.33b	見所分身諸佛悉已來集(各各坐於師子之座)
	『大正藏』9, p.33c	又我分身
『종지용출품』 제15	『大正藏』9, p.41a	爾時釋迦牟尼佛分身諸佛從無量千萬億他方國土來者
『여래신력품』 제21	『大正藏』9, p.52b	及諸分身者.....令我及分身
『촉루품』 제22	『大正藏』9, p.52c	十方諸分身佛各還本土.....十方無量分身諸佛坐...

표4.

이상과 같이 『견보답품』 제11에 “분신제불”의 용례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법화경』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출현한 과거불인 다보불과 현재불인 석가불의 이불병좌 이전에 시방국토에서 운집한 석가의 시방분신제불이다. 더욱이 여기에 등장한 모든 제불이 다함께 공중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 이 표현은 불타관의 공간적 초월성을 시사한다고 보아도 좋다. 『종지용출품』 제15에서는 타방국토의 8항하사수보살마하살이 등장하고,<sup>28)</sup> 석가불의 분신제불도 무량천만억 타방국토에서 내왕했다고 한다.<sup>29)</sup> 이 제불·보살들은 대승경전과 함께 출현한

28) 『大正藏』9, p.39c.

29) 『大正藏』9, p.41a.



일정한 공간을 점유한 시방제불을 상징한다. 이러한 시방제불은 『여래수량품』 제16에서 구원본불의 개현에 의하여 하나의 석가불로 통일되므로써 완전한 공간적 통일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법화경』은 여타의 경전보다도 불신관의 공간적 초월성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 Ⅲ. 『법화경』에 나타난 불타관의 특징

천태 지의는 『법화경』 총28품을 각각 14품씩 양분하여 전반을 적문, 후반을 본문으로 보고, 적분에서는 적불의 활동, 본문에서는 구원본불의 선언이 그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천태의 판단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 『법화경』의 성립사를 적용하여 나름대로 불타관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제법의 통일자

적문에는 주로 적불의 활동이 중심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 그 중에 제법의 통일은 『방편품』 제2에서 개현되고 있다. 『법화경』의 설시 이전까지 석존은 대기설법, 즉 방편설법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를 ‘40년 전 미연진실’이라고도 한다. 중생의 근기는 모두 다르다. 그래서 석존은 중생의 근기를 성숙시키는 방편의 일환으로 일승진실을 숨기고 삼승을 설했다는 것이다. 아라한을 구하는 성문승에게는 사제법, 벽지불을 구하는 연각승이나 독각승에게는 십이인연, 성불을 구하는 보살승에게는 육바라밀을 설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삼승방편교설을 진실로 착각하고 집착하여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없다. 부득불 석존은 삼승방편 일승진실임을 선언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절대적 의미로써 ‘개삼현일,’ 또는 ‘회삼귀일’이다. 이것을 상대적 의미로써 ‘폐삼현일,’ ‘파삼현일,’ ‘폐권입실,’ ‘파권입실’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은 곧 불교의 역사와도 일맥상통하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화경』이 출현하기 이전, 인도에는 삼승교가 확립되었고, 어떤 교설이 불타의 금구소설인 진실에 해당하며, 정법인가에 대한 이론(異論)이 발생되었던 것이다. 대·소승(삼승)의 정법 논쟁이 그것인데, 이 정법 논쟁을 불식시키고자 결집된 것이 『법화경』이다. 정법이란 무엇일까? 본래 정법의 산스크리트는 “saddharma”이다. 이를 축법호는 “정법”으로 직역하였고, 라집은 “묘법”으로 의역하였다. 필자는 라집의 의역에 동의한다. “묘법”이란 상대적인 것을 초월한 절대적 절대의 의미이다. 이를 “총절묘(總絶妙)”라고도 하는데, 일체 만법이 역동적으로 통일되고 소생하는 우주의 통일적 진리, 즉 절대·최고의 진리를 말한다.<sup>30)</sup>

원시불교에서 절대·최고의 진리는 “연기의 이법”이며, 대승불교의 『반야경』에서는 “공(空)”이고, 『법화경』 『방편품』 제2에서는 “제법실상,” 또는 “일승”이다. 흔히 일승을 말할 때, 묘법을 덧붙여 “일승묘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아울러 삼승이 각자 고유의 수행법을 버리지 않고도 모두 하나로 통일되는 절대 원리이기도 하다. 이

30) 이영자 역(1990), 『천태법화의 사상』(민족사, pp.50-51)에는 묘법에 대하여 라집문하의 도생(?~434)은 중국 현존 최초의 『법화경』 주석서인 『묘법연화경소』에서 “묘법이란 형태도 없고 소리도 없으며, 모든 사교의 영역을 초월한 것,” 광택사 법운은 『법화경의기』에서 “妙란 상대인 것을 초월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 천태 지의는 『법화현의』 권제2장에서 “妙는 絶이며 絶은 妙의 異名,” 일연 선사는 『법화제목초』에서 “절대 최고의 진리(絶)로써 모든 것을 평등하게 수용·통합[具]하며, 동시에 모든 것에 눈을 열고[開], 참으로 살아 있게 한다[蘇生]”는 絶·具·開·蘇生의 4가지 의미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처럼 「방편품」 제2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법화경』 이전까지의 제법이 모두 일승묘법으로 통일되고 있다. 이제 그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제불출세의 일대사인연

『법화경』 「방편품」 제2는 총6단 장행과 계승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 장행부터 5단 계승까지는 사리불의 삼지삼청이 중심 내용으로 되어 있다. 비로소 제6단 장행에서 제불출세의 일대사인연이 설해진다. 일체 제불은 일체 중생을 불지견에 개·시·오·입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출현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4불지견인데, 범본에는 5불지견으로 나타나 있다. 그 불지견이 일승이라고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사리불아, 여래는 다만 일불승으로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시고, 다른 법이 없거늘 어찌 이승이 있고 삼승이 있겠느냐. 사리불아 일체 시방제불의 법도 이와 같다.”<sup>31)</sup>

여기에서 “제법실상,” “묘법,” “불지견” 등은 “일승”과 동등한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제불출세의 본원은 일체 중생이 절대·최고의 진리인 일승을 증득하게 하는 일이다.

## 2) 제불동도

제불출세의 일대사인연이 일승으로 개현된 이후, 곧 바로 5불장으로

---

31) 『大正藏』 ㉔ p.7b. 석가불장이 맨 나중에 나오는데, 삼세제불이 모두 설주인 석가불로 통일되는 예시로 보아도 무방하다.

나뉘어 제불동도로 재차 설해진다. 5불장이란 과거불장·미래불장·현재불장·제불장·석가불장이다.<sup>32)</sup> 특히 여기에서는 “일불승으로 일체중지를 얻게 한다”<sup>33)</sup>고 나타나 있다. 일체지와 방편지가 동시에 구축된 것이 일체중지이다. 이것은 부처님과 동등한 경지를 의미한다. 또한 범본의 『미래불장』 제102계에는 “제법의 본성 또한 항상 명정하다”고 나타나 있다.<sup>34)</sup> “제법의 본성”은 중관학파에서는 “공성,” 유식학파에서는 “심식”으로 간주하는데, 『묘법화』에는 “심정(心淨)”<sup>35)</sup>으로 기술되고 있다. 심성본정설은 불성이나 여래장사상과 관계가 깊다. 게다가 “불종”<sup>36)</sup>이란 말까지 등장한다. 아무튼 일체 중생의 구제는 석가불뿐만 아니라, 삼세제불의 동도인데, 여기에서 “제법실상,” “묘법,” “불지견,” “일체중지,” “제법의 본성,” “심정,” “불종” 등은 “일승”과 동등한 의미를 갖게 된다. 물론 불지견이나 일체중지는 진리를 체득하였을 때, 자연히 생기는 부처의 지혜를 가리킨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이 5불장에도 제불동도로써 일승이 설해진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 3) 석존 성도의 내용

석존 성도의 내용을 원시불교에서는 연기의 이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화경』에서는 이를 “제법실상,” “묘법”으로 환원시키고, 제불출세의 일대사인연과 제불동도로써 “일승”으로 개현하고 있다. 제6단 계승에서 석존은 보리수 하에서 제일법인 일승을 체득했지만, 중생들이

32) 横超慧日(1975), 『法華思想』, 平樂寺書店, p.408.

33) 『大正藏』9, p.7b “得一佛乘一切種智故”

34) Wogihara and Tsuchida本, p.51 14-17행; H. kern and B. Nanjio本, p.53 7-8행.

35) 『大正藏』9, p.8a “佛子心淨”

36) 『大正藏』9, p.9b “佛種從緣起”

이를 찬탄할지라도 불신수하기 때문에 열반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과거불이 방편력으로 설했던 것처럼 바라나시로 가서 5비구에게 중생의 근기에 따라 방편력으로 일승을 삼승으로 나누어서 설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석존의 이러한 삼승방편교설로 인하여 중생의 근기가 성숙되어 이근기가 되었기 때문에 마침내 『법화경』에 와서 삼승방편교설을 버리고 일승진실을 개현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또한 천태 지의는 일승에 대하여 『법화문구』 권4하에서 理·教·人·行을 들어 四의 一로 해석하였다.<sup>37)</sup> 따라서 『방편품』 제2에서는 불교의 역사상 『법화경』 이전까지 나타난 제법을 일승으로 통일한 석존을 묘사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종합하여 간단히 정리하면 <표5>와 같다.

통일 원리	통일 대상	통일 주체	통일 목적	통일 목표
일승 (묘법)	이법(진리)	석가불	제법의 통일과 정법논쟁의 불식	일체 중생의 구제(성불) 실현
	교법(가르침)			
	삼승(일체중생)			
	제행(불사)			

표5.

요컨대 『법화경』은 대·소승의 소모적 정법 논쟁을 영구히 불식하는 원리로써 일승묘법을 제안하고, 그 방법론으로써 제법의 통일을 통하여 당면과제인 일체 중생의 구제를 역동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제불출세의 본원을 회복하자는 상생의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37) 『大正藏』34, p.55a-c; 河村孝照(平成3年), 『天台學辭典』(國書刊行會, p.125)에는 『방편품』 제2에 기술된 “世間相常住,” “十方佛土中 唯一乘法 無二亦無三,” “但爲教菩薩,” “正直捨方便 但說無上道”의 문구가 각각 4의 1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필자는 “是法住法位 世間相常住,” “十方佛土中 唯一乘法,” “諸佛如來 但教化菩薩,” “諸佛出於世 唯此事實”의 문구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다.

## 2. 일체 중생의 구제자

석존에 의해 제법이 일승으로 통일되었다면, 그 통일된 원리를 실천하는 길만 남아있다. 중생구제의 불사가 그것이다. 제불출세의 일대사인연도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다. 특히 『법화경』에서 중생구제는 성불을 목표로 한다. 성불의 가르침만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 성불의 가르침이 일승이다. 남녀노소, 선악,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열린 교리이다. 이것을 만선성불, 소선성불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화경』의 별칭이 만선동귀교로 불리워진다. 『방편품』 제2의 6단 계승에는 만선에 대한 일체 중생의 광범위한 작불수기가 설해지고, “만약 법을 듣는 자는 성불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여 “무일불성불”<sup>38)</sup>이 강조된 것도 그런 맥락이다.

### 1) 만선에 대한 총체적 성불수기

『방편품』 제2에서는 만선에 대한 총체적 성불수기가 부여되는데,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6바라밀을 행한 모든 사람은 다 불도를 성취한다.
- ② 불멸도 후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하면 성불한다.
- ③ 불멸도 후 불탑을 건립하고, 벽돌, 기와, 진흙으로 건립하거나 아이들이 놀면서 모래로 탑을 만들어도 성불한다.
- ④ 칠보나 놋쇠, 구리, 진흙 등으로 불상을 장엄하면 성불한다.
- ⑤ 아이들이 장난으로 나뭇가지나 풀, 손가락으로 불상을 그리면 성불한다.

---

38) 『大正藏』9, p.9b; Wogihara and Tsuchida本, p.51 12행; H. kern and B. Nanjio本, p.53 9행.

- ⑥ 불탑과 불상이나 탱화를 공양하는 사람은 성불한다.
- ⑦ 산란한 마음으로 탱화나 불상을 공양, 친견, 예배하거나, 산란한 마음으로 탑묘에 들어가 나무불이라고 한 번만 부를지라도 성불한다.
- ⑧ 과거제불의 재세나 멸도 후 『법화경』의 법문을 들으면 성불한다.

이처럼 광범위한 성불수기가 설해지는데, 한결같이 난행도가 아닌 이행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법화경』의 중심사상이 궁극적으로 일체중생의 성불을 지향하는 일승사상이기 때문이다.

## 2) 성문승에 대한 성불수기

『비유품』 제3에는 불타의 직제가 가운데 사리불에게 최초로 성불수기가 주어진다. 사리불은 미래세에 무량제불을 공양하고 정법[一乘]을 봉지하고 보살행을 닦아 화광여래로 성불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천태는 『방편품』 제2와 『비유품』 제3의 전반 부분을 법설주로 보고, 사리불이 삼승방편 일승진실의 법문을 듣고 즉시 깨달았다고 하여 상근기로 판정했던 것이다.

사리불의 성불수기 다음에 『비유품』 제3에서는 법화7유 가운데 유명한 “삼계화택”의 비유가 설해진다. 녹거·양거·우거와 대백우거가 그것이다. 이 비유는 『신해품』 제4의 “장자궁자”의 비유와 『약초유품』 제5의 “삼초이목”의 비유로 이어진다. 그리고 『수기품』 제6에서 이 비유를 들은 4대성문, 마하가섭, 수보리, 대가전연, 대목건련에게 성불수기가 설해진다. 천태는 이 4대성문이 비유를 통한 비설주를 듣고 일승묘법을 이해했다고 하여 중근기로 간주하였다.

『화성유품』 제7에는 “화성보처”의 비유와 대통지승여래의 왕고인연

담이 설해지고 있으며, 『오백제자수기품』 제8에는 부루나와 천이백 아라한, 그리고 교진녀를 비롯한 오백아라한의 성불수기와 함께 “의리게주”의 비유가 설해지고 있다. 다음의 『수학무학인기품』 제9에는 아난과 나홀라, 이천의 학무학성문제자들에 대한 성불수기가 설해진다. 천태는 이들이 인연주를 듣고 자각했다고 하여 하근기로 판정하였다. 이와 같이 『비유품』 제3에서 『수학무학인기품』 제9까지 성문승에 대한 성불수기를 부여하는 구제자로서 적불의 불타관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행도로써 불탑신앙이 권장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 3) 제바달다와 용녀의 성불수기

『제바달타품』 제12에는 일천제로 불리워지는 제바달다와 어린 용녀에 대한 성불수기가 설해진다. 과거무량겁에 석존이 『법화경』을 구했다고 한다. 그 때 한 선인이 『법화경』을 설해주었고, 그 선인이 제바달다였다는 속세인연담이다. 그런 무량한 속세 인연에 의해 석존은 성불하였기 때문에 제바달다가 무량겁을 경과한 이후 성불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어서 8세의 사가라 용왕의 어린 딸은 여인오장설에도 불구하고 신통력으로 남성으로 변하여 즉시 성불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 4) 비구니 등의 성불 수기

『권지품』 제13에는 비구니들에 대한 성불수기가 설해진다. 교담미와 학(學)·무학(無學)의 6천 비구니가 법사가 되어 점차 보살도를 구축하여 성불하게 되고, 아소다라 비구니도 보살행을 수행하여 작불한다는 내용이다.



### 5) 경권신앙에 의한 총체적 성불수기

『법사품』 제10에서는 경권신앙에 의한 성불수기가 설해지고 있다. 경권신앙의 5행법은 경권의 수지, 독, 송, 해설, 서사인네, 경전 가운데 하나의 계송이나 하나의 구절을 듣고 일념으로 수회하는 사부대중이 있다면 다 아녹다라삼막삼보리의 수기를 준다<sup>39)</sup>고 나타나 있다. 아울러 경권을 안치한 짜이띠야를 보고 예배하면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 가까워짐을 알라는 내용도 설해지고 있다.<sup>40)</sup> 특히 『상불경보살품』 제20에도 “응당 일심으로 이 경을 널리 설하면 세세에 부처님을 친견하고 속히 불도를 성취한다”고 나타나 있다.<sup>41)</sup>

이상과 같이 제1류 『법화경』에 나타난 성문승의 작불수기에 이어서 제2류 『법화경』에서는 일천제와 여성, 비구니 등, 그리고 경권신앙에 의한 총체적 성불수기가 설해지고 있다. 따라서 『법화경』에는 석존이 일체 중생의 구제자로 충실히 묘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3. 법과 불의 일치자

석존에 의하여 『방편품』 제2에서 제법이 일승묘법으로 통일되고, 이에 입각하여 일체 중생의 구제자로서 석가불의 활동이 구체화되었다면, 과연 법과 불타가 하나로 일치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일까?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 해답을 『법화경』 가운데서 찾아보면, 망설임 필요도 없이 『견보탑품』 제11을 들 수 있을 것이다.

39) 『大正藏』㉔, p.30c; Wogihara and Tsuchida本, p.196 8-11행.

40) 『大正藏』㉔, p.31b-c.

41) 『大正藏』㉔, p.51c.

먼저 『방편품』 제2에서 석존은 일승을 개현하여 삼승의 차별을 철폐하여 제법을 일승으로 통일하고, 만선성불을 설하여 일체 중생을 구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승사상의 구체적 전개를 위한 일환으로 『비유품』 제3에서 “삼계화택,” 『신해품』 제4에서 “장자궁자,” 『약초유품』 제5에서 “삼초이목,” 『화성유품』 제7에서 “화성보처,” 『오백제자수기품』 제8에서 “의리계주”의 비유와 연계시켜 성문승에 대한 작불수기를 설함으로써 일승묘법에 입각한 석존의 활동을 입체적으로 부각시켜왔던 것이다.

특히 일승묘법은 『안락행품』 제14에서 “왕발중명주”의 비유를 통하여 최상의 진리로 일약 비약을 보게 된다. 불신관 역시 『여래수량품』 제16에서 구원본불의 선언과 “양의”의 비유로 인하여 절정에 이르게 되지만, 법과 불타는 『견보탑품』 제11의 제1단 장행에서 각각 다보여래와 석가불로 대치되고, 다보탑 내 이불병좌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로 일치된다. 그 장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석가불 전에 갑자기 지하에서 용출한 높이 5백 유순, 폭 2백5십 유순의 거대한 칠보탑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법화경』이 진리임을 큰 소리로 증명하였다. 이 보탑 안에는 여래전신(如來全身)이 있으며, 이미 구원의 과거세에 성불했던 과거불로 입멸을 당도해서 만일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어느 곳이건 반드시 보탑을 용출하여 그 설법을 듣고 진리임을 증명하는 서원을 세웠던 것이다. 그런 고로 과거불인 다보여래는 석가불이 『법화경』을 설하자마자 지하에서 칠보탑을 용출시켜 사바세계의 공중에 머물러 이를 증명하고, 이 두 분의 부처를 예배하려고 석존의 시방분신제불이 각각 보살가나 가운데 자신들을 따르는 한두 명의 시자들을 데리고 운집한 이후, 다보불이 자리를 반분하여 앉기를 권하자, 석존은 오른손으로 탑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보불과 함께 병좌하였고 [二佛竝坐], 사바세계에서 『법화경』을 설할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외쳤

던 것이다.”<sup>42)</sup>

여기에서 “칠보탑”과 “여래전신”이 등장하는데, 후자는 일승묘법을 설한 경권으로써의 법신사리를 말한다.<sup>43)</sup> 이보다 앞서서 『법사품』 제10에도 똑같이 “칠보탑”과 “여래전신”이란 말이 기술되어 있는데, 제2류의 『법화경』인 『법사품』부터는 사리신앙을 지양하고 경권신앙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sup>44)</sup> 그러므로 다보불에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진신사리가 아닌 짜이띠야에 안치한 『법화경』으로 보는 시각이 합당할 것이다.

한편 공중의 석가불과 분신제불은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 것인가? 주지하듯이 『종지용출품』 제15에서는 타방국토의 8항하사수 보살마하살과 무량천만억 타방국토에서 내왕한 석가의 분신제불이 등장한다. 이 타방국토의 제불·보살들은 대승경전의 출현과 함께 출현한 보신불과 보살마하살들이 아닐까? 나아가 『촉루품』 제22에서는 석가의 시방 분신제불과 다보탑이 각자 본토로 귀환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자의 국토로 귀환하여 각각 부촉받은 『법화경』을 설하고 이를 증명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다보탑 중의 이불명좌는 『법화경』과 석가불, 즉 법과 불의 일치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극적인 표현인 동시에 『여래수량품』 제16의 구원본불로 가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sup>45)</sup>

42) Wogihara and Nanjio본, pp.207 1행-215 13행; H. Kern and B. Nanjio본, pp.239 1행-250 13행; 『大正藏』9, pp.32b-33c.

43) 법신의 개념은 여러 가지이지만, 여기서는 일승묘법을 설한 『법화경』을 지칭하므로 법신불이 아닌 단순한 법신을 말한다.

44) 『법사품』 10, 『大正藏』9, p.31b. 불탑에 불사리를 봉안하는 것을 지향하고, 如來全身, 즉 경권을 안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塚本啓祥(昭和63), 『法華經の成立と背景』(佼成出版社, p.302)에도 경권을 표현한 법신으로 해석하고 있다.

45) 渡辺寶陽編(1966), 『法華佛教の佛陀論と衆生論』(平樂寺書店, p.98)에는 법의 영원성에 대한 관념을 불의 영원성에 대한 관념의 전환으로서 과거불과 현재불의

#### 4. 제불관과 행불관의 통일자

법신의 생명은 무시무종이고, 보신의 생명은 유시무종이지만, 응신의 생명은 유시유종이다. 카필라에서 탄생하여 구시나agara에서 입멸한 석가불은 응신에 해당한다.<sup>46)</sup> 그래서 응신의 활동무대는 사바세계의 땅위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그런데, 제2류의 『법화경』에서는 갑자기 그 무대가 공중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법화경』을 2처3회의 설법으로 보는 것이다.

더욱이 본문 가운데 서분으로 분리워지는 『종지용출품』 제15에서는 상황이 급반전된다. 『안락행품』 제14 말미에서 석존이 후악세 중에 제일법(『법화경』)을 설하면 무량한 공덕이 있다고 하자, 『종지용출품』 제15의 서두에 타방국토에서 왕립한 8항하사보다 많은 보살마하살이 호지, 독, 송, 서사, 공양하고 사바세계에서 널리 설할 것을 허락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때 석존이 불허하자, 천만억의 보살마하살이 사바세계 삼천대천 국토의 땅속에서 순식간에 용출하여 허공에 이불병좌한 다보탑의 처소로 가서 예배를 올리고, 보리수 아래 사자와 위에 있는 모든 석가의 화신제불에게 예배한 다음, 한쪽에 머물러 석가와 다보 2불을 50소집 동안 찬탄하는 희유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런 미증유의 장면들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 그 난제에 해답을 주는 것이 다른 아닌 본문의 불타관이다. 즉, 미륵보살과 팔천항하사의 보살대중은 석존이 가야에서 성도한 지 겨우 40여년밖에 경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땅속의 공중에서 용출한 천만억의 보살마하살을 제도한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다.<sup>47)</sup> 석존은 구원(久遠)에 이미 교화한 보살이라고 해명한

---

제불동도로 해석하고 있다.

46) 河村孝照(平成3年), 『天台學辭典』, 國書刊行會, p.37 참조.

다. 그런데도 미륵을 비롯한 팔천향하사의 보살대중은 끊임없이 의혹을 품게 된다. 비유하면 나이 25세의 젊고 건장한 청년이 백세의 백발노인을 나의 소생이라 하고, 아들 또한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들은 젊고 아버지는 늙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믿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품에서 구원(久遠)<sup>48)</sup>이라는 말이 총2회에 걸쳐 등장하는데, 미증유의 의문에 대한 대답만큼은 『여래수량품』 제16으로 이행된다.

『여래수량품』 제16에서 미륵보살이 상수가 되어 삼청을 한 다음, 석존이 여래의 비밀신통력을 교계하면서 그 의문에 대한 해명이 시작된다. 즉, 석존이 성불한 시점은 무량무변백천만억 나유타겁이라고 한다. 아울러 초기경전에 기술된 최고의 연등불을 훨씬 초월한 구원의 무한한 시간적 설명이 부연되고, 무량무변하여 산수로도 표기할 수도 없는 석존의 수명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여래는 진실과 같이 삼계의 상을 알고 보아 생사에 혹은 물러가고 나음이 없고, 또는 세상에 있는 자도 멸도하는 자도 없음이니, 實도 아니고 虛도 아니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느니라. 삼계를 삼계로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함이니, 이와 같은 일을 여래는 밝게 보아서 착오가 없건마는 모든 중생이 가지가지의 성품과 가지가지의 욕망과 가지가지의 행과 가지가지의 기억하고 생각함에 분별이 있는 고로, 모든 선근을 일으키게 하려고 여러 가지의 인연과 비유와 연사로써 여러 가지의 법을 설하여 부처님의 일을 하되, 일찍이 잠시도 쉬지 않았느니라. 이와 같이 내가 성불한 것은 심히 오래되고 멀어서[甚大久遠] 수명이 무량한 아승지겁이니, 항상 머물러 있어 멸하지 않느니라[常住不滅].

모든 선남자야, 내가 본래 보살도를 행하여 수명을 성취한 것이 지금도 오히려 다하지 못하였으며, 다시 위에서 말한 수의 곱이어서 지금 진실한 멸도가 아니건마는 방편으로 멸도를 취한다고 말하였느니라. 여래는

47) 『大正藏』 9, p.41c.

48) 『大正藏』 9, p.41b 28행, p.41c 10행.

이 방편으로써 중생을 교화하느니라.”<sup>49)</sup>

여기에서 석존이 구원실성 내지는 상주불멸의 본불로 제시되고 있다. 구원실성은 무시에 가까우며, 상주불멸은 무중을 암시한다. 더욱이 본불은 본래불로써 생멸의 상대적 시간규정을 완전히 초월한 본래의 부처이다. 그러므로 석가불은 수명이 무시무종일 뿐만 아니라 본래불이므로 법신불을 상징한다. 만약 상주불멸만을 인정한다면 보신불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응신·보신·법신의 삼신불이 모두 하나의 석가불로 통일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구원본불의 통일적 의미를 한층 명백히 하려는 일환으로 법화7유의 하나인 “양의”의 비유가 설해지고, 부처님께서 멸도하지 않고 상주한다면, 중생들이 불도를 닦지 않고 나태해지기 때문에 중생제도를 위한 선교방편으로 부득불 열반에 들어갔다고 했으나, 사실상 멸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라도 석존을 지극정성으로 청염하면 제자들과 함께 영축산에 출현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입멸이 방편이라면 탄생도 방편이라는 취지이다. 요컨대 구원실성의 본불인 석가불이 중생구제를 위한 방편력에 의해 무량제불의 모습으로 수적하여 응현한 것이기 때문에 불교역사상에 나타난 시방삼세의 제불은 모두 역사적으로 실재한 유일의 석가본불로 통일된다는 논지이다. 이것을 알기 쉽게 도표로 작성해보면 <표6>과 같다.

통일 원리	통일 대상	통일 주체	통일 목적	통일 목표
일승(묘법)	응신	석가불	제불의 통일 (불타관의 통일)	일승정토건설 (불국토건설)
	보신			
	법신			

표6.

49) 『大正藏』9, p.42c.

이것은 『방편품』 제2에서 제법의 통일을 적용했던 일승의 논리를 「견보탑품」 제11에서 범불일치의 논지로 전환되고 「여래수량품」 제16에서 제불의 통일로 실시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법화경』의 궁극적 의도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불교의 궁극적 과제이자 오랜 숙원사업인 관념론의 통일에 있다고 본다. 관념론의 통일은 종교적 가치에 근거한 무한한 창조적 원동력을 발휘한다. 반대로 고정관념에 의한 대립은 종교적 가치를 실추시키는데 국한되지 않는다. 타종교는 물론, 자신의 종교마저도 철저히 파괴해간다. 그것이 오늘날의 암울한 종교계의 현실상이다.

그러나 『법화경』은 관념론의 다양성에 기반을 둔 통일을 지향한다. 그 점이 여타의 경전이나 다른 종교와도 다른 현전한 차이점이자 장점이다. 삼승의 법을 버리지 않고도 일승으로 통일되는 “회삼귀일,” 혹은 “개삼현일”의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체 존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역동적인 불교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일승불교를 주창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방편품』 제2에서 삼승을 포함한 일체 중생을 “보살”<sup>50)</sup>로 통일하고, 제2류의 『법화경』인 『법사품』 제10부터 법사의 행불(行佛) 활동을 규정하고, 『상불경보살품』 제20에서 일승불교의 대표적 행불 자로써 상불경보살이 등장하고, 제3류의 『법화경』<sup>51)</sup>에서는 보살의 본사(本事)로써 구체적 행불활동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화경』의 최종 의도를 도표로 정리하면 <표7>과 같다.

50) 보살에는 소승의 작불을 인정하지 않는 보살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승을 포함한 일체중생의 성불을 인정하는 일승의 보살을 의미한다.

51) 「촉루품」 제22 다음의 후6품으로써 「약왕보살본사품」 제23, 「묘음보살품」 제24, 「관세음보살보문품」 제25, 「다라니품」 제26, 「묘장엄왕본사품」 제27, 「보현보살권발품」 제28을 말한다.

통일 원리	통일 대상	통일 주체	통일 목적	통일 목표
일승(묘법)	제법관	석가불	일승불교 (통일불교)	일승정토건설 (불국토건설)
	법불일치관			
	제불관			
	행불관			

표7.

이상과 같이 필자는 역사적으로 실재한 석가불에 의하여 불교의 핵심교리를 구성하고 있는 제법관·법불일치관·제불관·행불관 등이 순차적으로 통일되는 모습이 『법화경』에 나타난 불타관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된다.

#### Ⅳ. 나오는 말

먼저 초기경전과 『법화경』에 나타난 불타관의 원초적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자료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 『법화경』은 초기경전에 나타난 법불일치관의 논지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었다. 다만 초기경전에 나타난 “언기의 이법”이 『법화경』의 『방편품』 제2에서는 “제법실상,” “묘법,” “불지견,” “일체중지,” “제법의 본성,” “심정,” “불종” 등으로 이행되고, 다시 “일승”으로 통일되고 있었다.

둘째, 과거불의 용례에 있어서도 두 경전은 현재불과 미래불을 함께 기술한 부분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이것은 불타의 수명이 시간적 영원성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한 흔적의 하나로 보여진다. 다만 초기경전의 최고불인 연등불은 『법화경』에서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지 못한 과거불로 소개된 점만 다를 뿐, 『법화경』에서의 구월본불의 개현에



는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두 경전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여래십호나 32상 80종호를 설하면서 여래의 초월성을 점차 부각시켜가고 있었다. 다만 『법화경』에서는 초기경전의 태생적 한계를 탈피한 시간적 영속성과 공간적 초월성을 충족한 석가불이 설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서품』 제1부터서 과거무량무변불가사의 아승지겁의 일월등명불이 등장하고, 전전하여 이런 동일한 성을 가진 2만불이 출현하고, 맨 마지막 부처의 8왕자 가운데 막내가 연등불이었다고 한다. 『방편품』 제2에는 제불장, 과거불장, 미래불장, 현재불장, 석가불장의 5불장이 설해지고, 『화성유품』 제7에는 삼천진겁 전의 대통지승불이 출현하였는데, 그 수명은 오백사십만억 나유타겁이라고 한다. 『여래수량품』 제16에는 석가불이 구원본불로 개현되는데, 보신이나 무시무종의 법신을 상징한다. 이는 시간적 영원성을 상징한다. 더욱이 『견보탑품』 제11에서는 석가불의 무수한 시방 세계의 분신제불이 등장하고, 각각의 8방에 나누어 좌정했다고 한다. 게다가 『중지용출품』 제15에는 타방국토의 무수한 제불·보살이 출현한다. 이것은 공간적 초월성을 상징한다. 따라서 초기경전에 나타난 법불일치관, 과거불사상, 여래의 초월성 등은 대·소승불교의 정법논쟁을 불식하려는 시대적 사명의식을 띄고 출현한 『법화경』의 통일적 불타관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법화경』의 불타관은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법화경』은 제법의 통일을 통한 일체 중생의 구제자로서 불타관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었다. 『법화경』 이전까지 대승불교는 소승[二乘]을 패종으로 간주하고, 소승의 작불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승불교 또한 수행목표를 불타의 경지보다 한 단계 낮은 아라한과와 벽지불교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보살승[大乘]은 물론, 제바달다와 같은 일천제,

그리고 여인과 비구니 등을 비롯한 일체 중생의 성불을 불가능하게 여겼던 것이다. 대·소승[三乘]은 공히 일체 중생의 구제를 근본 목표로 삼고 있는 불타의 본의[本願]를 완전히 망각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런 오류들은 과감히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방법은 오직 외길 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일체 중생이 추구하는 목표, 즉 삼승교설이 하나의 진리로 통일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를 반영하고 개현된 것이 바로 “일승진실”이다. ‘성불의 가르침만이 진실’이라는 뜻이다. 천태는 이를 ‘진리는 하나[理一],’ ‘가르침은 하나,’ ‘사람은 하나[人一],’ ‘행은 하나[行一]’라고 깊고 폭넓게 해석했던 것이다. 이제 제법은 일승으로 통일되었고, 그 이념을 구현하는 길만 남게 된다. 그 길이 일체 중생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성불수기이다. 『방편품』 제2에서 일체 중생의 만선에 대한 총체적 성불수기가 광범위하게 시설되고, 『비유품』 제3 이하에서 제성문승, 제바달다와 용녀, 비구니 등, 그리고 경권신앙을 통한 총체적 성불수기가 무차별적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법화경』은 대승불교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연계시켜 일체 중생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불출세의 본원을 완벽하게 복원하였던 것이다.

둘째, 『법화경』은 다보탑 내 이불병좌의 모습을 통하여 법과 불의 일치자로서 불타관을 입체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이 한층 돋보인다. 다보불의 전신사리는 법신으로서 제법의 통일 원리인 일승묘법을 시각적으로 형상화시킨 경권의 형태로써 『법화경』을 말한다. 이 『법화경』은 석가불뿐만 아니라, 과거불인 다보여래, 석가의 시방분신제불은 물론, 대승불교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제불·보살, 그리고 일체 중생과도 분리할 수 없는 절대·최고의 진리이다. 이 우주의 절대·최고의 진리가 제불·보살과 일체 중생이 보는 앞에서 석가불과 비로소 하나로 일치된다. 이것은 바로 원시불교, 아비달마불교, 대승불교로 이어지는 법과 부처가 『법화경』에서 질서정연하게 하나로 통일되는 통일불교[一

乘佛敎], 환언하면 일승정도의 참모습을 형상화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법화경』의 본문에 나타난 구원본불의 선언은 제불의 통일뿐만 아니라, 대·소승불교의 불타관까지 통일하려는 큰 그림을 그린 것으로 평가된다. 모든 경전에 나타난 제불은 역사적으로 실재한 석가불을 기본 모델로 발전시킨 고도의 상상력이 결부된 불타관에 불과하다. 근기와 소원이 천태만상인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면, 거기에 부합한 불·보살의 출현은 당연지사이다. 특히 대승불교에서 무수한 불·보살이 출현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어느 경전에 출현한 부처가 최고불이며, 절대불이며, 진짜불일까? 어떤 보살이 실재한 보살이며, 전능한 보살일까? 어떤 경전과 교설이 최고의 가치가 있을까? 무수제불의 출현은 태생학상 불타관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던 것이다. 이런 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오직 불타관을 통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떤 불타가 가장 좋은 대안불이 될 수 있을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근원으로 돌아가서 찾아야 할 것이다. 역사상 유일하게 실재했던 석가불, 그 분을 통해서 최초로 실증되었고 교설되었던 정법[妙法], 바로 거기에서 해답을 발견했던 것이다. 적문에는 사바세계에 수적한 석가불, 즉 적불의 활동 모습이 자세히 그려져 있다. 그 적불이 본문의 『여래수량품』 제16에서 구원본불로 개현된다. 본불의 수명은 무시무종인 까닭에 법신불에 해당한다. 또한 미래수명에 대한 상주불멸만을 인정하면 보신불이 된다. 비로소 여기에서 응신·보신·법신의 삼신이 역사상 실재했던 석가불로 통일된다. 이 점이 바로 여타의 경전과 확연히 다른 특기할 만한 『법화경』만의 불타관이다.

이러한 『법화경』의 궁극적 의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다른 아난 관념론의 통일을 시사한다. 단순한 통일이 아닌 관념론의 다양성 자체를 인정하는 원융무애한 통일이다. 오늘날 일부 종교는 말할 것도 없

거니와 불교 내부에서조차도 관념론에 입각한 획일적 통일을 지향한다. 그 결과 고정관념이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게 된다. 대외적으로 상생을 표방하지만, 무장된 갑옷을 겹쳐 입고 파괴의 나락으로 향해간다. 새뮤엘 헌팅턴이 문명은 갈등과 대립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경고하였듯이 말이다. 『법화경』 이전의 대·소승뿐만 아니라, 현재도 미래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관념론은 상생과 파괴의 두 칼날에 비유된다. 『법화경』은 전자의 방법을 국집한다. “회삼귀일”의 방법론이 그것이다. 기존 관념을 버리지 않고도 삼승이 일승으로 통일되고, 통일된 일승 가운데서 삼승의 기존 관념은 한층 더 역동성을 갖게 된다. 이런 패러다임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실재한 석가불에 의하여 대·소승의 제법관·법불일치관·제불관·행불관이 통일되고 일체 존재가 참다운 생명력을 회복한다. 다시 말하면, 우주의 통일적 진리가 있는 곳에[一乘妙法] 일체 중생을 구원하는 영원한 석가불이 존재하고[一乘佛], 행불하는 보살이 시방에 충만할 때[一乘菩薩], 사바세계가 일승정토로 전환된다는 의미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필자는 일체 중생의 구제를 역동적으로 지향하는 법화불교의 부활만이 현대불교의 희망이자, 미래불교를 담보하는 유일한 지남이 아닐는지, 나름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 『중아함경』(『大正藏』1)  
『장아함경』(『大正藏』1)  
『잡아함경』(『大正藏』2)  
『증일아함경』(『大正藏』2)  
『묘법연화경』(『大正藏』9)  
『묘법연화경문구』(『大正藏』34)  
『남전대장경』권6, 권7, 권13, 권14, 권41  
H. Kern and B. Nanjio, 1977, *Saddharmapuṇḍarīka*, *Bibliotheca Buddhica* X,  
Printed in Japan.  
Wogihara and Tsuchida, 1934, 『改正 梵文 法華經』, 大正大學教.  
  
성우, 1977, 『법화경 연구』, 운주사.  
이영자 역, 1990, 『천태법화의 사상』, 민족사.  
塚本啓祥, 昭和63, 『法華經の成立と背景』, 佼成出版社.  
河村孝照, 平成3, 『天台學辭典』, 國書刊行會.  
渡辺寶陽編, 1966, 『法華佛教の佛陀論と衆生論』, 平樂寺書店.  
橫超慧日, 1975, 『法華思想』, 平樂寺書店.  
勝呂信靜, 1996, 『法華經の成立と思想』, 大東出版社.

## [Abstract]

### The Buddhakāya of the Lotus Sūtra

Ven. Sung-woo(Seo, In-lyeol)

This paper examines the Buddhakāya of the Lotus Sūtra. I studied the unity of the Dharma and the buddha, the idea of past buddhas, and the transcendental nature of the Buddha found in early sutras and

the Lotus Sūtra. All these three aspects point to the original concept of Buddhakāya. I have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Lotus Sūtra follows the themes of the early sutras faithfully. But interdependent origination is described as *sarva-dharmatā* and *saddharma* in the *Upāya-kausālya-parivarto nāma dvitīyaḥ*. And all the different names for 'truth' are unified as *eka-yāna*.

Second, when these sutras (early sutras and the Lotus Sūtra) talk about buddhas, they often describe past buddhas, present buddhas and future buddhas together. That fact seems to indicate the buddha's life span is eternal.

Third, these sutras (early sutras and the Lotus Sūtra) seem to emphasize the transcendental nature of the buddha, as suggested by the ten different names of the buddha, the 32 auspicious signs and the 80 features of the buddha. But Dipakara, who in early sutras is described as the oldest buddha, is introduced in the Lotus Sūtra merely as one of many past buddhas who can't transcend time. But the three aspects mentioned above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forming the unified Buddhakāya in the Lotus Sūtra.

Next, the Buddhakāya of the Lotus Sūtra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 concluded that the Lotus Sūtra defines a buddha as a savior of all beings and embodies the Buddhakāya faithfully through the unity of *sarva-dharma*. Mahayana Buddhism and Theravada Buddhism before the Lotus Sūtra accepted a limited enlightenment; they didn't talk about enlightenment for all beings. But in the Lotus Sūtra, enlightenment is described as being available to all human beings, including *srāvaka*, *vāyakaṛaṇa*, *icchantika*, lay women, *bhikṣhunīs*.

Second, unity of *sarva-dharma* and *sarva-buddha* is expressed

dramatically through the image of two buddhas sitting together in rantra-mayāh stūpa. It means that wherever the eternal Shakyamuni Buddha exists, there is the truth of unity of the universe.

Third, the Lotus Sūtra's declaration that the original buddha is eternal provides a larger picture of unity, not only of the sarva-buddha but also the Buddhakāya in Mahayana Buddhism. The unity of sarva-dharma in the Upāya-kausālya-parivarto nāma dvitīyaḥ is described as the unity of sarva-buddha in the Tathāgatāyus-pramāṇa-parivarto nāma ṣoḍaśamaḥ.

Through this study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revival of the Buddhakāya of Saddharmapuṇḍrika Buddhism is the only hope of modern Buddhism and the only guidance which guarantees the prosperity of future Buddhism.

Key Words: the unity of the Dharma and the buddha, sarva-dharmatā, eka-yāna-saddharma, the eternal Shakyamuni, two buddhas sitting.

성우(서인렬)은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중앙승가대학교 포교사회학과 교수이다. 대표 저서로는 『법화경 연구』가 있으며, 관심 분야는 『법화경』과 천태사상 및 포교학이다.

[2009. 10. 15. 투고; 2009. 12. 12. 수정; 2009. 12. 15. 채택]

